

【 해외금융뉴스: 미국 】

IMF, 2009년 세계경제 2차 대전 이후 최악 예상

- IMF는 2009년 1월 28일 세계경제에 대한 전망치를 작년 11월의 2.2%에서 0.5%로 하향 조정한다고 발표함.
 - 세계경제 성장률이 3%이하로 낮아지면 침체기로 간주되므로, 0.5% 수준은 극심한 침체기에 접어든다는 것을 의미하며, 2차 대전 이후 가장 낮은 수치로 기록됨.
 - 세계경제 전망치에 이례적으로 각국의 소비 진작 정책을 포함했음에도 불구하고 3%대를 넘어서는 가시적인 경제회복은 2010년이 되어서야 가능할 것으로 전망함.
 - 그러나 이러한 전망도 매우 불확실한 것이며, 경제 회복의 시기와 속도는 각국의 강력한 소비진작 정책에 크게 의존할 것이라고 발표함.
- 선진국은 2차 대전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 성장이 전망되며, 신흥국가의 성장역시 예상 보다 낮은 수준으로 전망됨.
 - 선진국 및 유로지역 전체의 2009년 성장은 -2.0%가 예상되는 가운데 미국은 -1.6%, 독일은 -2.5%, 일본은 -2.6%, 영국은 -2.8%가 전망됨.
 - 세계경제의 성장엔진인 신흥국가 및 개발도상국가의 2009년 경제성장도 지난 2008년 11월의 5.1% 전망에서 3.3%로 하향 조정됨.
 - 중국의 2009년 경제성장은 당초의 8.5%에서 6.7%로 하향 조정되었고, 2010년에는 8.0%로 회복할 것으로 예상됨.
- 한편, IMF의 국제금융안정화보고서(Global Financial Stability Report)에서는 금융시장의 신용경색이 실물경제로 전이되는 것을 막기 위해 각국이 재정·통화정책에 특단의 노력을 기울였으나, 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관의 부실자산 규모는 더욱 커지고 있다고 발표함.
 - 금융시장 악화 등으로 인해 은행의 자본상각은 2009년 1월 26일 현재 7,920억 달러에 이르렀으며, 은행이 자본을 총당한 8,260억 달러 중 46%에 해당되는 3,800억 달러는 각국 정부에 의한 구제금융이었다고 밝힘.
 - 또한 은행 등의 부실자산 규모는 2008년 10월 현재 1조4천억 달러에서 2009년 1월 현재 2조 2천억 달러로 증가하였다고 보고함.

(IMF World Economic Outlook Update 1/28
IMF Global Financial Stability Report 1/28
Financial Times 1/28)